

高1 장수연 '통한의 2벌타'

<함평골프고>

캐디백 플레이 선상에 놓고 쳐 '룰 위반'… 연장서 이정은에 우승컵 내줘

KLPGA 현대건설 오픈 최종

국가대표 삼비군 장수연(16·함평골프고)이 규칙 위반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현대건설 서울경제여자오픈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다.

장수연이 5일 경기도 화성시 리베라 골프장(파72.6천 50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연장전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두 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낸 이정은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장수연은 이날 1위로 경기를 끝냈지만 규칙위반으로 2벌타를 받으며 2위 이정은(7언더파 209타)과 동점을 이뤄 연장에 들어갔다.

15번홀(파4)에서 캐디백을 플레이 선상에 놓고 쳐다는 지적을 받아 스코어카드를 제출하기 직전 2벌타를 적어낸 것이다.

골프규칙 8-2는 스트로크가 진행되는 동안 플레이 선상 또는 선 가까이나 그 홀을 넘어 연장선 위에 어떤 장비도 세워두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연장전에 나선 장수연은 폭우로 경기가 한동안 중단된 뒤 그린 위에 올랐지만 1.2m 짜리 퍼트를 놓치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지난해 두차례 우승을 차지한 이정은은



'2벌타'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현대건설 서울경제여자오픈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한 장수연(함평골프고)이 18번 홀을 마치고 스코어카드를 제출하면서 아쉬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경제 제공>

시즌 처음이자 통산 세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상금 6000만원을 받았다.

지난주 LIG클래식에서 국가대표 배희경(18·남성여고)이 우승한데 이어 장수연도

프로선배들을 제치고 우승을 노렸지만 규정

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실수 탓에 눈물을 삼켜야 했다.

아마추어 선수가 KL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한 기록은 1995년 미도파 여자오픈과 크리스찬디아 여자오픈에서 잇따라 정상에 오른 박세리(33)가 갖고 있다.

장수연과 함께 챔피언조에서 동반플레이를 펼쳤던 김하늘(22·비씨카드)은 3위(5언더파 211타), 김보경(24·톱스리스)은 7위(1언더파 215타)에 그쳤다.

우승 후보였던 서희경(24·하이트)은 2타를 놓고 공동 8위(이븐파 216타)로 밀려 올해 10개 국내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신고하지 못했다. 유력한 신인왕 후보인 조유지(19·한솔)는 7언더파 65타의 팬티를 휘두르며 4위(3언더파 213타)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는 뒷심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우승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

이정은은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18번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세번째 샷으로 그린 위에 볼을 올린 뒤 두차례 퍼트로 파를 잡아내 보기에 그친 장수연을 때렸다.